

‘만화전쟁’...갈데까지 가려나?

심판대 오른 스포츠신문 음란·저질만화

스포츠신문의 ‘음란저질만화’가 드디어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11월 6일과 9일 한국기독교총연맹,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YWCA 등 기독교 10개단체는 ‘음란폭력물에 대한 기독교모임과 단체들의 시정요구를 묵살한 스포츠신문에 압력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압력형태로 스포츠신문 광고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에 3개 스포츠신문사(일간스포츠·스포츠서울·스포츠조선) 앞으로 음란폭력적 내용을 근절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개선기미가 안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신문사의 가장 큰 재정원이라 할 수 있는 광고를 실지 못하도록 광고주에 압력을 넣는 고차원적 투쟁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검찰에서도 스포츠신문 음란만화에 대한 단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학교 주변 음란퇴폐만화의 단속을 강화하며 음란만화를 중·고교생에게

판매한 업주 2명을 구속한 사실에 비교할 때 스포츠신문의 음란만화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진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스포츠신문사에 선정적인 만화를 삼가도록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당시 결정문에서 ‘만화가 일부 남편 관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외설적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독자층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일반독자들이 혐오감을 갖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신문의 음란저질만화는 핵심주제가 섹스와 폭력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부추겨 건전한 삶의 문화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높다. 3개 스포츠신문 만화의 실태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음란저질만화에 대한 대책을 알아본다.

스포츠신문만화 구독실태

11월 7일 퇴근길 인파로 북비는 7시경, 종로5가로 가는 지하철 1호선 풍곡도는 스포츠신문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5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총 4백여 명을 선정하고 두달간 분석한 내용을 담은 ‘스포츠신문 만화 구독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서’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민학생(6학년)의 경우 조사대상자 총 97명 중 69명(71.7%)이 한달동안 한번 이상 스포츠신문을 본다고 밝혔다. 또한 남자대학생(42명), 회사원(91명)은 1백% 구독하고 있으며 남자중학생은 55명 중 53명(96%), 남자고등학생은 55명 중 47명(85%)이 스포츠신문을 애독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스포츠신문을 볼 때 어떤 기사를 먼저 읽느냐’는 질문에 총 조사 대상자 4백명 중 2

백이 섹스이고 이것도 순전히 변태성욕과 가장 잔인한 폭력과 살인이 아무런 여과없이 만화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간스포츠에 9개, 스포츠서울에 7개, 스포츠조선에 5개의 만화가 실려 있어 스포츠신문인지 만화신문인지 구분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YWCA보고서에 실린 만화(90.415-616까지 수록)내용을 보면 낮 뜨거워지는 장면이 한 둘이 아니다.

만화의 선정도가 짙어 가장 많이 팔린다는 일간스포츠의 경우 반 이상이 ‘에로만화물’이다.

‘김삼의 코믹극장’의 지난 5월31일자 그림을 보면, 여자의 반나사신이 나오면서 ‘그녀가 말없이 코트자락을 펴자 실오라기 하나 안 걸린 누드’라는 대사가 이어지고 있다. ‘코믹극장’란은 직업이 없는 청년이 자신의 성편력을 극작가에게 고백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로 긴장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만화로는 ‘돈아돈아(강철수 작)’도 마찬가지. 스포츠서울에 ‘발바리의 추억’을 연재했던 작가가 일간스포츠로 지면을 옮겨 같은 주인공과 동일주제하에 얘기를 풀어간다. 작품의 주인공인 달호

국민학생에게 널리 읽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같은 무분별한 일본문화의 모방이 국민학생에게 일본문화에의 동경을 갖게하고 일본적 정서에 친근감을 갖게 한다면 큰 걱정거리라 아니할 수 없다.

YWCA 보고서를 보면 ‘변금연’과 비슷한 형태로 한·일 합작만화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몇개월간 일간스포츠에 연재된 ‘삼룡전’(이학인 글, 히시마쓰 무시오 그림)은 일본작가의 의도대로 만화내용이 연재되고 있다. 히라오카 키슈라는 일본상인이 주인공으로 ‘한·중·일이 교류를 통해 아시아 평화를 이루어나가자’는 취지의 만화인데, 그 취지가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 공영화론’과 흡사해 소름을 끼치게 한다. 의식있는 만화가와 단체에서는 수입허용이 안되는 ‘일본만화’가 버젓이 스포츠신문에 실리는 것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고 이미 미국의 영화산업 침투로 시작된 제국주의문화 침투를 앞장서서 선도하는 스포츠신문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일간스포츠는 최근 외설 영어를 번역한 ‘관능유미’도 실고 있어 스포츠신문의 도덕성과 민족성이 밑바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간스포츠의 ‘복카치오 90’(임웅순 글, 김삼 일러스트)은 그림과 글이 혼합된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변태성욕이다. 또한 남편주인공이 모두 ‘성관계’만을 지고의 관심사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의 등장무대는 스텐드바의 고급술집과 호텔, 별장 등이다. 결국 놀고 먹는 유한계급들의 놀음을 그리고 있는데 생존권을 위해 하루 14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다수민중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한편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지속하게 타락시켜 버리는 만화도 있는데, 지난해부터 일간스포츠에 연재된 ‘춤추는 에벌레’(이현세 작)가 그것이다. 오혜성이라는 주인공은 강패출신으로 좋아하는 여자와의 성관계를 위해 노동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나 선거가 불리해지자 폭력을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만화는 노동운동이 성문제 때문에 변질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무서운 왜곡을 가쳐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신문 만화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이 모방하기 쉬운 폭력조직의 잔인한 구타와 폭력행사들이 여과되지 않은 채 스포츠신문 만화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원인과 대책

스포츠신문에 음란저질만화가 실리는 원인으로서는 스포츠신문사 간의 ‘판매부수경쟁’때문이다. 스포츠조선 창간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는 과열경쟁은 ‘만화부록’의 경쟁으로 나타났고 독자확보를 위해 섹스를 비롯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질만화가 판을 치게 된 것이다. 얼마후에는 민주일보와 세계일보에서도 스포츠신문을 창간한다는 말이 돌리는 시점에서 독자확보를 위한 ‘만화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YWCA 청소년상담센터의 한명섭간사(28)는 스포츠신문이 갖는 매체의 과급력 때문에 청소년의 정서와 성격발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는 퇴폐향락·음란문화가 사회에 퍼져있는 것’이라며 스포츠신문 만화가 범람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배경과 환경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스포츠신문사가

노동자가 바라본 스포츠신문

요즘 어느 장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이 스포츠신문이고 누구나 즐겨 보는 것이 스포츠신문일 것이다.

그속에는 매일매일 신나는 ‘돈아돈아’가 있으며 변금연의 신나는 몸의 투쟁기가 있다. 그리고 색시한 여자의 나체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림도 허다하다. 그러나 노동자가 보면 심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돈아 돈아 돈아’와 ‘변금연’은 일반적인 사회의 흐름의 일부본인 황금만능주의와 성의 패락주의의 종말을 비판적으로 결론을 내지언정 그 과정 자체는 사회적 각성과는 정반대인 퇴폐문화를 발전시키고 황금만능주의를 부채질 할 뿐이다.

특히 몇십년을 벌어도 집 한칸 장만하

공하고 사안을 어지럽혀 의식과 행동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천만 노동자는 알 수 있다.

그것 뿐이던가. 80년대에 언론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신문은 진실을 밝혀내는 동물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정권의 하수배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망각한 채 아직까지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대다수 민중의 눈을 현혹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딱할 수 밖에 없으며 천만 노동자들은 현 정권과 스포츠신문사를 규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신문은 우리 민족이 지켜온 도덕과 윤리를 실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민족자존심을 내팽개치는 언론사라 감히 말하고 싶다.

노동자 삶 왜곡...“혐오스럽다”

기판 복권당첨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노동자의 현실을 조소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다.

선수의 연봉이 1억을 넘고 몸을 바치는 대신 몇억을 받는 만화의 여주인공은, 무서움이 단단한 천만 노동자의 가슴과 뇌리속에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비쳐지고 뼈저린 남자주인공은 가장 못난

이 시대에 살고있는 노동자는 피에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현재상황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동자의 가슴을 신문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두들기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스포츠신문사여, 부탁하노니 노동운동도 ‘운동’이니 노동운동의 실태를 정확히 보도하고 정의로운 사회실현을 위한 기

40대의 셀러리맨 무거운 책가방을 멘 고등학생, 안경은 20대 후반의 직장여성 할 것 없이 지하철의자에 앉은 두 사람 건너 한 명 꼴로 스포츠신문을 보고 있었다. 지하철 좌석이 54석인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만 계산해서 16명이 스포츠신문에 열중해 있었다. 반면에 보통일간지를 보는 사람은 5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낯설지 않고 자연스러운 풍경이지만 스포츠신문의 만화부록을 활짝 펼쳐놓고 눈동자를 반짝이는 20대도 눈에 띄었다.

지난 3월 21일 ‘스포츠조선’이 창간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3대 스포츠신문의 판매부수 경쟁은 4월 이후 3대신문사가 연이어 ‘만화부록’까지 내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지하철 안에서 정치·사회문제를 그나마 담아내는 보통일간지는 구독율이 대폭 떨어졌고 지하철안은 ‘음란폭력만화’를 보고 히터거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야 하는 ‘공범’을 만드는 풍속도가 판을 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가두판매대 신문판매원 진석규(21)씨에 따르면, 보통 오후 3시면 다음 날짜의 스포츠신문이 도착하는데 그때 해당받는 3대스포츠 신문의 각 부수가 4백부라고 한다. 그러데 이 신문들은 잘 팔리는 신문의 종류와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저녁 11시쯤에는 거의 다 판매되고 다음날 아침에 받는 여유분 1백부도 출근시간에 모두 팔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하철안에서 파는 신문물량(1백부정도라 함)을 합치고 서울과 근교의 지하철·전철역의 수를 곱하면 그 판매물량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판매물량은 스포츠



백4명(51%)이 만화를 1~3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사의 구독순위에서 ‘만화가 우선순위가 되는 현상은 곧 ‘스포츠신문=만화’라는 동식이 독자의 뇌리에 암암리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스포츠신문을 1백% 본다는 회사원·남자대학생의 스포츠신문 구독이유는 ‘만화’ 때문이라는 가설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YWCA, 설문내용 중에는 ‘스포츠신문 구독이유’도 있는데 응답자의 48%(1백73명)가 ‘심심해서 본다’고 했으며 23%(83명)가 ‘내용이 재미있어서 본다’고 답하고 있다. 심심함을 달래는 소재로, 재미를 충족시키는 재료로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함

라는 대학생은 모든 사물을 성과 연관시켜 사고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기의 몸을 여자에게 팔면서 그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매춘남의 역할을 한다.

작가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달호라는 대학생의 회화화를 통해 ‘돈이면 다 된다’ ‘돈을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를 유포시키며 전설되게 사는 대다수 대학생들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높다.

에로만화로는 이외에도 스포츠서울의 ‘변금연’(배금택 작) ‘형설수설 사랑타령’(허무영) ‘양산박(이로마 작)’등과 스포츠조선의 ‘놀라운 만화야’(기스세 작) ‘미운이

스포츠신문의 '음란저질만화'가 드디어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11월 6일과 9일 한국기독교총연맹,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YWCA 등 기독교 10개단체는 '음란폭력물에 대한 기독교모임과 단체들의 시정요구를 묵살한 스포츠신문에 압력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압력형태로 스포츠신문 광고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에 3개 스포츠신문사(일간스포츠·스포츠서울·스포츠조선) 앞으로 음란폭력적 내용을 근절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개선기미가 안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신문사의 가장 큰 재정원이라 할 수 있는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광고주에 압력을 넣는 고차원적 투쟁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검찰에서도 스포츠신문 음란만화에 대한 단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학교 주변 음란퇴폐만화의 단속을 강화하며 음란만화를 중·고교생에게

판매한 업주 2명을 구속한 사실에 비교할 때 스포츠신문의 음란만화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진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스포츠신문사에 선정적인 만화를 삼가도록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당시 결정문에서 '만화가 일부 남녀관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외설적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독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일반독자들이 혐오감을 갖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포츠신문의 음란저질만화는 핵심주제가 섹스와 폭력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부추겨 건전한 삶의 문화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높다. 3개 스포츠신문 만화의 실태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음란저질만화에 대한 대책을 알아본다.

스포츠신문만화 구독실태

11월 7일 퇴근길 인파로 붐비는 7시경, 종로5가로 가는 지하철1호선 풍곡도는 스포츠신문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섹스와 폭력물로 얼룩...건강한 문화의식 파괴 독자확보 내세워 외설물 경쟁...당국도 방치 책임 국민 모두의 준엄한 비판과 감시노력 필요

노동자가 바라본 스포츠신문

요즘 어느 장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문이 스포츠신문이고 누구나 즐겨 보는 것이 스포츠신문일 것이다.

그속에는 매일매일 신나는 '돈아돈아'가 있으며 변금련의 신나는 몸의 투쟁기가 있다. 그리고 섹시한 여자의 나체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림도 허다하다. 그러나 노동자가 보면 심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돈아 돈아 돈아'와 '변금련'은 일반적인 사회의 흐름의 일부본인 황금만능주의와 성의 패락주의의 종말을 비판적으로 결론을 낼지언정 그 과정 자체는 사회적 각성과는 정반대로 퇴폐문화를 발전시키고 황금만능주의를 부채질 할 뿐이다.

특히 몇십년을 벌어도 집 한칸 장만하

고하고 사안을 어지럽혀 의식과 행동을 다른 곳으로 돌이키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천만 노동자는 알 수 있다.

그것 뿐이던가. 80년대에 언론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신문은 진실을 밝혀내는 등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고 정권의 하수배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망각한 채 아직까지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대다수 민중의 눈을 현혹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딱할 수 밖에 없으며 천만 노동자들은 현 정권과 스포츠신문사를 규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신문은 우리 민족이 지니는 도덕과 윤리를 실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민족자존심을 내팽개치는 언론사라 감히 말하고 싶다.

노동자 삶 왜곡...“혐오스럽다”

기란 복권당첨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노동자의 현실을 조소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다.

선수의 연봉이 1억을 넘고 몸을 바치는 대신 맛먹을 받는 만화의 여주인공은, 무식같이 단단한 천만 노동자의 가슴과 뇌리속에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비쳐지고 뼈째마른 남자주인공은 가장 못난 자식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기사내용이나 만화내용도 문제지만, 현정권과 적절하게 타협하며 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땅에 사는 민중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쌓여 부패하는 현정권의 쓰레기를 불살라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당하게 웃음거리로 제

박준도

대우전자부품 노조원

40대의 셀러리맨 무거운 책가방을 멘 고등학생, 안경은 20대 후반의 직장여성 할 것 없이 지하철의자에 앉은 두 사람 건너 한 명 꼴로 스포츠신문을 보고 있었다. 지하철 좌석이 54석인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만 계산해서 16명이 스포츠신문에 열중해 있었다. 반면에 보통일간지를 보는 사람은 5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낯설지 않고 자연스러운 풍경이지만 스포츠신문의 만화부록을 활짝 펼쳐놓고 눈동자를 반짝이는 20대도 눈에 띄었다.

지난 3월 21일 '스포츠조선'이 창간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3대 스포츠신문의 판매부수 경쟁은 4월 이후 3대신문사가 연이어 '만화부록'까지 내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지하철 안에서 정치·사회문제를 그나마 담아내는 보통일간지는 구독율이 대폭 떨어졌고 지하철안은 '음란폭력만화'를 보고 히히덕거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야 하는 '공범'을 만드는 풍속도가 판을 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가두판매대 신문판매원 진석규(21)씨에 따르면, 보통 오후 3시면 다음 날짜의 스포츠신문이 도착하는데 그때 할당받은 3대스포츠 신문의 각 부수가 4백부라고 한다. 그러데 이 신문들은 잘 팔리는 신문의 종류와 날짜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저녁 11시쯤에는 거의 다 판매되고 다음날 아침에 받는 여유분 1백부도 출근시간에 모두 팔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하철안에서 파는 신문물량(1백부정도라 함)을 합치고 서울과 근교의 지하철·전철역의 수를 곱하면 그 판매물량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판매물량은 스포츠신문의 열광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이라 하겠다.

진석규씨는 '만화부록'이 나온 후 한곳의 전철 가판대에서 보통 1백 정도의 판매물량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 현상을 '만화전쟁'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소년 정서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 YWCA 만화모니터모임은 지난 4월 2일부터 두 달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포츠신문만화를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화

병을 선정하고 두달간 분석한 내용을 담은 '스포츠신문 만화 구독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 보고서'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민학생(6학년)의 경우 조사대상자 총 97명중 69명(71.7%)이 한달동안 한번 이상 스포츠신문을 본다고 밝혔다. 또한 남자대학생(42명), 회사원(91명)은 1백% 구독하고 있으며 남자중학생은 55명 중에 53명(96%), 남자고등학생은 55명 중에 47명(85%)이 스포츠신문을 애독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스포츠신문을 볼 때 어떤 기사를 먼저 읽느냐'는 질문에 총 조사 대상자 4백명 중 2

김삼의 코믹극장'의 지난 5월31일자 그림을 보면, 여자의 만사자신이 나오면서 '그녀가 말없이 코트자락을 펴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누드가...'라는 대사가 이어지고 있다. '코믹극장'란은 직업이 없는 청년이 자신의 성편력을 극작가에게 고백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성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로 긴장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만화로는 '돈아돈아(강철수 작)'도 마찬가지. 스포츠서울에 '발바리의 추억'을 연재했던 작가가 일간스포츠로 지면을 옮겨 같은 주인공과 동일주제하에 얘기를 풀어나간다. 작품의 주인공인 달호



백4명(51%)이 만화를 1~3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사의 구독순위에서 '만화'가 우선순위가 되는 현상은 곧 '스포츠신문=만화'라는 등식이 독자의 뇌리에 암암리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스포츠신문을 1백% 본다는 회사원·남자대학생의 스포츠신문 구독이유는 '만화' 때문이라는 가설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YWCA 설문내용 중에는 '스포츠신문 구독이유'도 있는데 응답자의 48%(1백73명)가 '심심해서 본다'고 했으며 23%(83명)가 '내용이 재미있어서 본다'고 답하고 있다. 심심함을 달래는 소재로, 재미를 충족시키는 재료로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때 만화내용에 따라서는 정서의 빈 공간을 음란적으로, 폭력적으로 채울 수도 있는 것이다.

만화내용 분석

소위 스포츠신문의 '황색이데올로기'는 독재정권의 국민우민화정책에 봉사한다. 스포츠신문에서 이런 3S(Sports·Screen·Sex)정책에 가장 충실한 것이 '만화'라 할 수 있다. 3대 스포츠신문의 주요내용으로는 폭력과

라는 대학생은 모든 사물을 성과 연관시켜 사고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기의 몸을 여자에게 팔면서 그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매춘남의 역할을 한다.

작가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달호라는 대학생의 회화화를 통해 '돈아 돈아 돈아' '돈을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를 유포시키며 진실되게 사는 대다수 대학생생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높다.

에로만화로는 이외에도 스포츠서울의 '변금련' (배금택 작) '형설수설 사랑타령(허무영)' '양산박(이로마 작)'등과 스포츠조선의 '놀랄일 많았어요(김순생 작)' '서울아리랑(한화국 그림)'등이 있다. 이중 '변금련'은 시골처녀가 집단적 음란을 당한 뒤 서울로 올라와 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소문쟁'이라는 노인에게 팔려가 '성의 명기'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인데, 성폭행과 변태성욕을 주제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그런데 이 만화에 나오는 '소문쟁'이라는 노인의 그림이 일본만화 '드레곤볼'의 주인공과 똑 같아 일본만화의 표절시비와 함께 일본문화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드레곤볼'이라는 만화는 번역되어

아시아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취지의 화인데, 그 취지가 일본제국주의의 '대공영화론'과 흡사해 소름을 끼치게 한다. 식있는 만화가와 단체에서는 수입허용이라는 것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고 이미지의 영화산업 침투로 시작된 제국주의 침투를 앞장서서 선도하는 스포츠신문은 노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일간스포츠는 근 외설 영어를 번역한 '관능유미'도 있어 스포츠신문의 도덕성과 민족성이 다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간스포츠의 '북카치오 90'(임웅순 필, 삼 일러스트)은 그림과 글이 혼합된 형 그려지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변태성다. 또한 남녀주인공이 모두 '성관계'만고의 관심사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의 무대는 스탠드바의 고급술집과 호텔, 등이다. 결국 놀고 먹는 유한계급들의 율을 그리고 있는데 생존권을 위해 하루간 일하는 노동자와 다수민중의 생활거리가 먼 이야기다.

한편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저속하게 시켜 버리는 만화도 있는데, 지난해부터 간스포츠에 연재된 '출구는 에벌레'(이 작)가 그것이다. 오해성이라는 주인공은 패출신으로 좋아하는 여자와의 성관계를 해 노조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나 선거가 리해지자 폭력을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만화는 노동운동이 성문제 때문에 변질, '폭력을 행사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무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신문 만화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있다. 더불어 청소년이 모방하기 쉬운 조직의 잔인한 구타와 폭력행사들이 되지 않은 채 스포츠신문 만화에 등장하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원인과 대책

스포츠신문에 음란저질만화가 실리는 인으로는 스포츠신문사 간의 '판매부쟁'때문이다. 스포츠조선 창간 이후 더성을 부리는 과열경쟁은 '만화부록'의으로 나타났고, 독자확보를 위해 섹스를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질만화가 판게 된 것이다. 얼마후에는 민주일보와 일보에서도 스포츠신문을 창간한다는 들리는 시점에서 독자확보를 위한 '만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YWCA 년상담센터의 한명섭간사(28)는 스포츠이 갖는 매체의 과급력 때문에 청소년의서와 성격발달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 지적하고 '문제는 퇴폐향락·음란문화가 회에 퍼져있는 것'이라며 스포츠신문가 범람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배경과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스포츠신문수요가 있으니까, 또는 독자가 원하기급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이라며 모더니 공급과잉이 무절제한수 촉진시킨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신문주요 담당부서인 공보처는 스포츠신문는 거대언론사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부의 무스포츠신문사의 자체반성을 기대하기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노동의욕을 감키는 스포츠신문을 준열히 비판하고 감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오창현 기